

37번째, 농기구이야기

밭을 다지고, 흙을 덮는 ‘끝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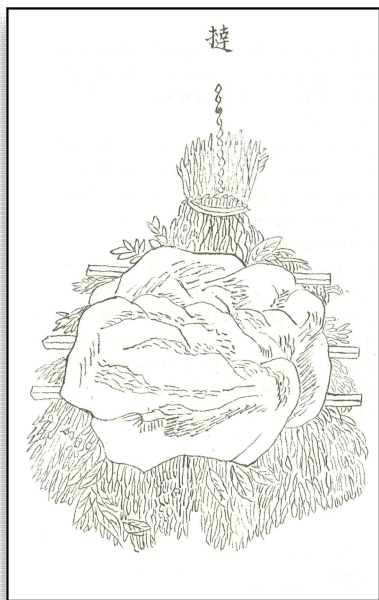
끝개, leveler, 12×112×74, 농업박물관 소장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1.4.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끌개의 명칭

끌개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덩어리진 흙을 부수거나 땅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혹은 씨앗을 뿌린 후에 씨앗을 흙에 덮이게 하는 데도 쓰인다.

끌개라는 명칭에서 무언가를 끄는 도구라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끌개의 어원은 정확하지는 않다. 끌개에 관한 이른 기록은 농사직설에 ‘木斫背(목작배)’라고 전해져 오는 것으로 보아 1492년 이전부터 사용해온 농기구로 보인다. 끌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物譜(물보)』에는 ‘끄으개’로 표기되어 있으며, 18세기 말에 쓰여진 『海東農書(해동농서)』에는 ‘끄으레’로 부르다가 근년에는 ‘끌개’였던 것이 지금은 ‘끌개’로 변화되었다. 해동농서와 물보에서는 撻(달)로, 색경과 과농소초에는 勞(로), 증보산림경제에는 曳撈(예로)로 표기되어 있다. 지방에 따라서 ‘끌개’, ‘끄승개’, ‘끄싱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海東農書 ‘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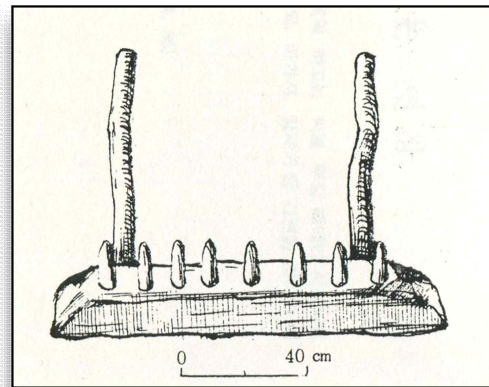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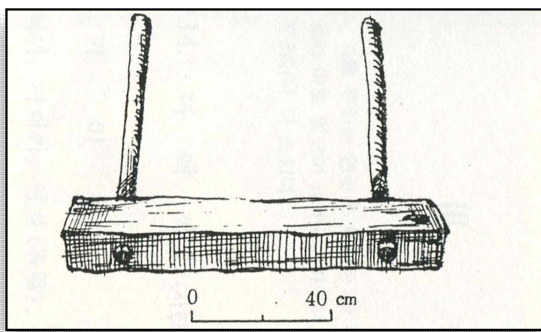
2. 끌개의 재료 및 형태

끌개의 형태나 재료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흔한 것은 솔가지나 땃싸리를 두툼하게 묶고 이에 손잡이를 붙인 것으로, 위에 사람이 올라앉거나 돌을 얹어서 끄는 것이다.

‘Y’자모양의 틀 바닥에 나무토막을 가로로 댄 것과 잔가지가 10cm가량 남아있는 길이 1m 되는 나무토막을 평상씨레처럼 배열한 틀로 된 것이 있다. 그리고 발이나 거적에 돌이나 땃장을 얹어 끄는 방식도 있는데, 『해동농서』의 ‘끄으레[撻]’가 바로 그런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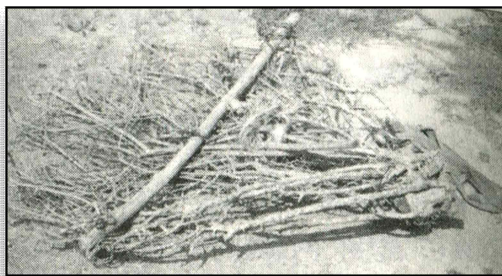
이 밖에 무거운 나무토막 양쪽에 자루를 박고 여기에 끈을 매어 쓰며, 특히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려 할 때에는 둥근 나무토막에 쇠못을 촘촘히 박은 것 2개 이상을 이어 붙이고 이들 사이에 널을 깔고 사람이 앉아 끌고 다니기도 한다. 특히 경남 영산의 골개에서는 썰레처럼 발이 달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얹어서 밧고무래처럼 쓰기도 한다.

호남 지방 지리산 일대의 산간지대에서는 서너 그루의 소나무를 뗏목처럼 나란히 묶되 가지를 짧게 쳐서 이[齒]를 삼아 끌어서 흙을 잘게 부수기도 하는데, 오늘날의 썰레나 평상 썰레는 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남 영산지방의 골개> 썰레 형태처럼 발이 달려있다. ©김광언

한편, 제주지방에는 골개를 변형시켜 만든 섬피가 있는데 갈이한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 편평하게 밭을 고를 때나, 파종한 씨를 흙으로 덮어주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육지의 골개와 다른 점은 골개처럼 소에 매어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크기를 비교적 작게 만들어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기도 한 점이다. 사람이 끌 경우에는 섬피위에 돌을 3-4개 정도 얹어 일의 효율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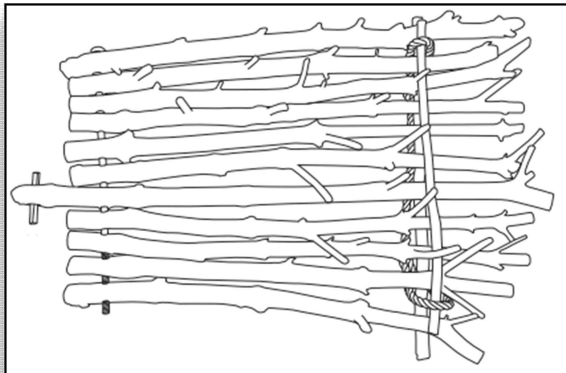
<제주지방의 섬피> 소에 매어 끌거나 사람이 직접 끌기도 하였다. ©김동섭, 홍정표

3. 골개의 용도

끌개는 주로 씨를 뿌린 뒤 흙을 덮을 때 쓰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전 흙을 고르게 할 때에 쓰인다. 유사한 용도의 농기구로는 씨레, 번지 등이 있으며 각각 쓰임이나 토양에 따라 알맞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서유구가 19세기 초에 쓴 林園經濟志(임원경제지) 본리지에서 끌개의 쓰임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농업기술서인 齊民要術(제민요술)에 쓰인 “무릇 봄에는 깊게 심어야 하므로 무거운 끌개로 끌어주어야 하고, 여름에는 얇게 심고도 그대로 두어도 저절로 난다”는 말을 인용하며 아래와 같이 끌개의 용도에 대해 주석을 달았다. “봄 기운은 차가워서 더디게 나기 때문에, 끌개로 끌어주지 않으면 뿌리가 들떠서 나더라도 쉽게 죽어버린다. 여름 기운은 뜨거워서 생장이 빠르는데 끌개로 끌어주었다가 비라도 만나면 땅은 말라서 굳어질 게 뻔하다. 봄에 습기가 많다면 반드시 끌개를 쓸 필요는 없다. 정 끌개질이 하고 싶다면 흙 표면이 하얗게 마르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물기가 많은데도 끌개질을 하면 땅이 단단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기술하였다. 이 글로 미루어 보아 끌개는 봄철 마른땅에 깊게 흙을 일구기 위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끌개는 또한 어린 송아지에게 일을 가르칠 때에도 주로 이용하는데 코뚜레를 뚫은 소에게 바로 쟁기를 걸지 않고, 소에게 끄는 힘과 멍에를 질 수 있도록 목 힘을 키워주기 위하여 끌개에 어린아이나 돌을 엮어 끌게 하기도 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농기구도감』,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서유구, 『임원경제지』 본리지3, 2009.

『한민족역사도감 생업』, 국립민속박물관, 2008.

김동섭, 『제주도 전래농기구』, 2004

정연학, 「소[耕牛]에 나타난 민속학적 의미와 상징」, 1999

※) 이 글에서는 한자어로 된 단어나 옛 책의 표기방법은 한자를 먼저 표기하고 한글음을 괄호안에 표기하였습니다.